



광주 충장축제 '팡파르'

'제5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가 개막된 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도청 앞 특설무대에서 개막식 축하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엿새 동안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질 이번 축제에서는 '추억 & 2030'이라는 주제로 36개의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환율 폭탄’ 광주·전남 기업 비상

기름·원자재값 천정부지 … 수출도 포기

은행권 돈줄마저 막혀 ‘이중 삼중고’

“힘들어요. 제품의 90% 이상을 수입 원자재로 충당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높아 납는 게 없습니까?”

플라스틱 기와를 생산하는 담양 A업체 대표는 “최근 3년 전부터 회사 발전 로드맵을 통해 올해 100억원의 매출목표를 세웠으나, 원자재가와 환율이 폭등하면서 60억원도 채우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업체 대표는 “올해 매출 100억 원을 목표로 지난해 말 20여명의 직원을 채용했다가 올초 30여명을 구조조정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됐다”면서 “사업 다각화는커녕 미국·중국

등에 수출하려던 계획도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유가·고원자재가에 이어 원·달러 환율까지 폭등하면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주고 있다. 경영악화에 자금난까지 겹치면서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이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설상가상으로 금융권이 돈줄을 좁면서 일부 업체들은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할 여력조차 없을 뿐 아니라, 사업 다각화를 고려하던 업체들도 환율이 금등 바람에 숨을 죽이고 있는 상태다.

냉장고 부품을 생산하는 광주시 하

남산단 내 K업체는 페인트 제품을 비롯해 텅스텐, 티타늄 등 원자재의 70%를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재 값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0~300%까지 치솟아 매달 3천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 다각화를 위한 설비 투자는 커녕 직원들의 월급 걱정을 해야할 상황이다. 광주시 평동산단 내 B기업은 경우 환율을 상승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조비용이 늘어나고 외화부채와 이자도 증가하는 등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삼성 광주전자는 환율 급상승으로 수출 환경은 좋아질 수 있지만 금융,

외환 시장 불안이 길어지면 소비 심리가 위축돼 타격이 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환율이 뛰면 매출이 들어나는 혜택을 보고 있지만 환율 급등이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달려로 거둬들이는 해외 판매 수익을 고려하더라도 수입자재 가격이 폭등하면 생산비용이 늘고 이는 완성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지역 여행업계를 비롯해 정유업계와 가스업계도 원화 환율 상승의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종태기자 jtee@kwangju.co.kr

환율 1,300선 뚫려 ‘환란 공포’

青, 비상계획 가동

글로벌 금융시장 위기와 실물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연일 요동치고 있다.

(관련기사 5·6·11면)

환율은 6년6개월 만에 1,300원선을 넘어서고, 증시가 빙·온탕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함에 따라 청와대가 비상 계획을 점검하는 등 초비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7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 당 59.10원 폭등한 1,328.10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2002년 4월 12일(1,332.00원) 이후 6년6개월 만에 최고치로, 최근 3거래일간 141.10원 폭등했다.

또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59원 이상 폭등한 것은 지난 1998년 8월6일(70.00원) 이후 10년2개월 만에 처음으로,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외환 시장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증시는 소폭 상승했지만 장중 금융 락을 거듭하는 등 잠자재 불안은 여전했다.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7.35

포인트(0.54%) 오른 1,366.10으로 장을 마쳤다.

하지만 코스피지수는 장중 1,321.81까지 급락했다가 오후 들어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세에 힘입어 간신히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지수는 오전 9시26분께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효력이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드라마를 거듭한 끝에 전날보다 4.44포인트(1.09%) 하락한 401.95로 마감됐다.

금융시장 불안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점예금 증서(CD) 금리 급등 등 고금리 기조에 한 끝을 하고 있다. 이날 91일물 CD금리는 전날보다 0.04%포인트 급등한 5.95%로 마감돼 2001년 1월30일(6.0%) 이후 7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시장 혼란과 관련, 청와대는 이날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는 등 긴급 대책 마련에着手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호남고속철 빨리 완공”

한승수 총리 지방신문협회 인터뷰

한승수 국무총리는 6일 “저자가 난다고 해도 호남고속철도 건설이 가능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한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 9층 회의실에서 이뤄진 광주일보 등 한국 지방신문협회 회원사 기자들과의 공동인터뷰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교통부문의 혁법은 철도”라고 강조한 뒤 “호남고속철도를 가능한 빨리 완공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유리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방행정체계 개편 문제와 관련, “현재의 지방행정체계는 농경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대 변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편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 지방분권에 대해 한 총리는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중앙과 지

방의 권한이양 문제를 구체화될 것으로 보는데 그때 정부에서 다양한 대안을 내놓아서 충분히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 배타적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하는 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5대 도시 및 국내 주요 도시 순위		
순위	도시	국가
1	뉴욕	미국
2	런던	영국
3	도쿄	일본
4	파리	프랑스
5	워싱턴	미국
12	서울	한국
162	울산	한국
203	대전	한국
221	인천	한국
242	부산	한국
287	대구	한국
295	광주	한국

광주시 도시 경쟁력

광역시 중에 ‘꼴찌’

세계 도시 295위

광주시의 도시 경쟁력이 국내 6대 광역시 가운데 ‘꼴찌’라는 평가가 나왔다.

7일 본보가 입수한 ‘중국 사회과학원의 세계 500개 주요 도시의 경쟁력 비교 분석(전 세계 도시경쟁력 보고서·2007년 기준)’ 결과, 광주시는 종합 순위에서 295위에 머물렀다.

평가 대상 도시 가운데 광주시는 울산(162위), 대전(203위), 인천(221위), 부산(242위), 대구(287위)에 이어 6위다.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하는 도시 경쟁력 비교는 전 세계 500대 도시를 대상으로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취업률 등 8개 지표를 종합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 사회조사 연구 등에 자주 인용된다.

광주시는 세부 평가항목에 서 6개 도시 가운데 GDP(176위), 특히 취득(294위) 부문에서 최하위에 머물렀다.

/윤영기자 penfoot@



노인이 웃는 세상!

광주도주부연대는 예전입니다.

여전히 노후는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자...

당신의 손을 떠나면 더 넓은 세상에는 그 행복입니다.

행복한 노후 체험비 라는 날이입니다.

온라인 광장은 노력을 소비하고 향기를 디자인한 아름다

여행을 통해 대중에게 농약 배포로 풀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노인문화센터는 노인문화센터입니다.

광주광